

2015. 2.

순천시의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 연수기간 : 2015. 1. 15. ~ 2015. 1. 24.(8박 10일)
- 방문국가 : 뉴질랜드,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연수참여 : 10명(의원 7, 직원 3)

문화경제위원회

I. 연수 개요

□ 연수목적

- 세계경제 흐름이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체제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농축산물 생산기법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가 견학을 통한 우수 정책을 우리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색하기 위함

□ 연수개요

- 주 제 : 농축산물 선진 생산기법 및 문화·관광산업 방향제시
- 기 간 : 2015. 1. 15. ~ 1. 24.(8박 10일)
- 연수국가 : 뉴질랜드,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인 원 : 10명(의원 7, 직원 3)

□ 중점분야

1. 협동조합운영 및 관리
2. 문화·환경분야
 - 문화시설 보존 및 친환경시설 발전 사례
 - 음식점 및 숙박시설 운영실태
 - 환경보존 및 유기영농시설 견학
3. 관광도시 정비분야
 - 관광정책의 모범적 운영사례 및 도시 정비실태
 - 도시의 전반적인 관리실태 및 관광객 이용편의시설 견학

□ 연수 참가자

- 박광득 문화경제위원장, 나안수 의원, 유혜숙 의원, 주윤식 의원, 정철균 의원, 박계수 의원, 임종기 의원(7인)
- 임영택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혜정 주무관, 임희찬 주무관(3명)

II. 연수 일정

1일차	1월 15일(목)			
장 소	교통편	시간	일 정	비고
순천 ~ 인천	의회차량	08:00	순천 출발 / 인천 도착	
인천 ~ 오uckland	KE129	17:00 / 08:00	인천 출발 / 오uckland 도착(11시간)	

2일차	1월 16일(금)			
장 소	교통편	시간	일 정	비고
오uckland 로토루아	전용차량	전일	● 로토루아 시청 방문 ● 신비의 와이토모 동굴 - 세계8대 불가사의 와이토모 동굴 문화 탐방 ● 농민 협동조합 방문	

3일차	1월 17일(토)			
장 소	교통편	시간	일 정	비고
로토루아 오uckland	전용차량	전일	● 레드우드 수목원 방문 ● 마오리 민속마을 탐방 ● 뉴질랜드 6.25참전비 방문	

4일차	1월 18일(일)			
장 소	교통편	시간	일 정	비고
오uckland 퀸스타운	JQ281 전용차량	전일	● 에로우타운 탄광촌 견학	

5일차	1월 19일(월)			
장 소	교통편	시간	일 정	비고
퀸스타운	전용차량	전일	● 퀸스타운시 방문 ● 환경보호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 비교 등	

6일차	1월 20일(화)			
장 소	교통편	시간	일 정	비고
퀸스타운 크라이스트처치	전용차량	전일	● 키위농장 방문 ● 마운트쿡 국립공원 방문 - 푸카키호수 등 견학	

7일차	1월 21일(수)			
장 소	교통편	시간	일 정	비고
크라이스트처치 호주(시드니)	EK419	전일	● 체리농장 방문 ●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탐방 ● 크라이스트처치 ~ 시드니(호주)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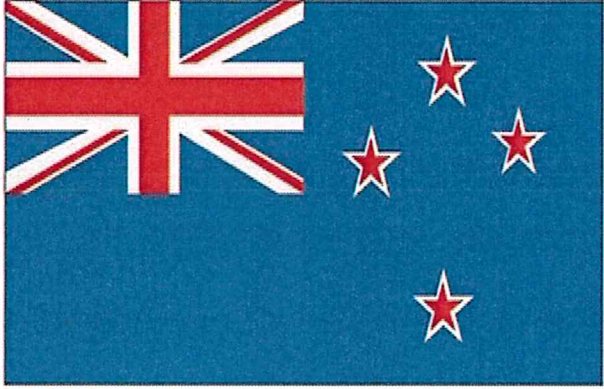
8일차	1월 22일(목)			
장 소	교통편	시간	일 정	비고
시드니	전용차량	전일	● 파라마타 시의회 방문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탐방 - 국립공원 관리실태, 활성화 방안	

9일차	1월 23일(금)			
장 소	교통편	시간	일 정	비고
시드니	전용차량	전일	● 시드니 시청 방문 ● 시드니 동부지역 탐방 - 시드니 관광정책 등 비교견학 ● 오페라 하우스 등 관광자원 탐방	

10일차	1월 24일(토)			
장 소	교통편	시간	일 정	비고
시드니 ~ 인천	KE122	09:00 /17:30	● 시드니 출국 / 인천 도착	
인천 ~ 순천	의회차량	17:30 /23:00	● 인천 출발 / 순천 도착	

Ⅲ. 연수지별 기본현황

1. 뉴질랜드

	남서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 북섬과 남섬 2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1840년 와이탕기 조약에 따라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07년에 독립하였으나 영국연방의 일원으로서 형식적으로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실질적으로는 의원내각제 형태다.
---	--

□ 개 요

- ◎ 위 치 : 남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 남동쪽
- ◎ 면 적 : 268,680km²(남한의 2.7배)
- ◎ 인 구 : 약 430만명(오클랜드 153만, 웰링턴 45만, 크라이스트처치 37만, 해밀턴 15만 등으로 북섬에 약 76%가 살고 있음)
- ◎ 1인당 GDP : 44,000달러
- ◎ 수 도 : 웰링턴(Wellington)
- ◎ 구 성 : 유럽계 백인(69.8%), 마오리족(7.9%), 태평양제도인(4.4%)
- ◎ 공용어 : 영어, 마오리어
- ◎ 종 교 : 성공회(14.9%), 로마 카톨릭(12.4), 장로교(10.9%), 감리교(2.9%)
- ◎ 건국일 : 1907년 9월 26일
- ◎ 자 연

뉴질랜드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하는 섬나라로서 지형이 험준하고 화산과 지진이 많다. 북섬은 면적의 63%가 산지와 구릉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화산이 많다. 이 밖에 온천과 간헐천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로토루아의 화카레와레와는 북섬 최대의 관광, 휴양지가 되었다. 전 국토 중 경지는 14%, 초원은 58%, 산림지대는 28%를 차지한다.

● 역 사

뉴질랜드를 처음으로 찾은 유럽인은 1642년 남섬 서해안에 도착한 네덜란드의 아벌 타스만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곳을 고향 제일란트의 이름을 따서 “노바젤랜디아”라고 명명하였으며, 뉴질랜드는 이 말의 영어식 번역이다.

타스만이후 뉴질랜드를 찾은 사람은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James Cook)선장이었다. 쿡선장은 1769~1777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이 지역을 답사하였다. 1840년 마오리족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뉴질랜드의 통치권을 영국에 양도하는 와이탕기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부터 뉴질랜드 회사, 오타고 협회, 캔터베리 협회 등을 통하여 각지에서 이민자가 건너오기 시작하였다.

1880년대 초 냉동선이 개발되자 오지에서도 농목업이 발전하였고, 1852년에는 뉴질랜드 헌법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 후 뉴질랜드는 개척이 진전됨에 따라 1947년 독립하였다.

뉴질랜드는 원주민(마오리족) 보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 정 치

국회의원 내각제로(3년마다 총선을 실시) 의회의장이 시장을 겸직하며, 시장선출은 의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시장임기는 1년, 시의원 선출은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다.

● 행정조직

시장 - 부시장 - 수석행정관 - 그룹행정관 - 부서행정관 - 직원

● 경 제

뉴질랜드는 고도로 발달한 농목국이며, 특히 양모·낙농품·육류의 생산과 수출이 국민경제의 골격을 이룬다. 양·육우·젖소 등을 주로 사육하고 있으며 양모·버터·육류 생산량은 세계적 수준이다.

와이카토의 버터와 타라나키의 치즈 및 이스틀랜드의 육우가 유명하며, 특히 캔터베리람(새끼양 고기)의 명성은 세계적이다.

유일하게 2차산업 제조업이 없는 국가이다.

● 사 회

뉴질랜드는 인구가 적지만 넓은 국토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국민생활이 매우 풍요롭다. 또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산업의 기계화가 진전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완전 고용이 실현되었다.

이와 더불어 1898년 세계 최초로 양로연금제가 실시된 이후 완벽한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세계적인 복지국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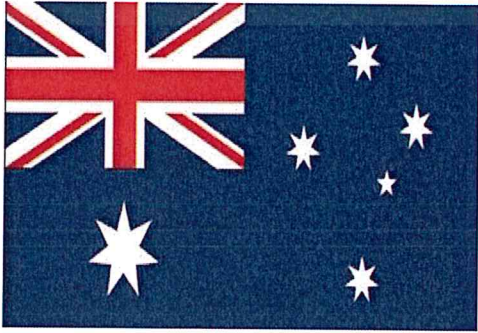
● 문 화

건전한 중산층의 나라로 일상생활이 검소한 편이다. 주류(酒類) 소비에는 엄격한 규제가 있으며, 음주를 수반한 오락시설은 거의 없다. 반면에 크리켓·럭비·스키·골프 등의 옥외 스포츠는 매우 활발하며, 특히 럭비는 뉴질랜드의 국기(國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등 유럽이민자들이 국민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어 서구적 문화·예술 전통과 가치관이 지배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원주민인 마오리족 문화 또한 잘 융화되어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족의 독특한 문화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영국연방에 속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테즈메이니아섬 등을 국토로 한다. 1788년 1월 26일 영국이 최초로 유럽인 정착지를 세운 이래 영국의 식민 상태였다가 1901년 1월 1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을 발족하였다.
---	---

□ 개 요

- 면 적 : 7,686,850km²(한반도의 35배)
- 수 도 : 캔버라(1013년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서로 수도 도시를 원하자 중간지점인 캔버라로 정하였다고 함)
- 종속구성 : 유럽계 89.2%, 아시아계 4.1%, 원주민 1.6%
- 공용어 : 영어
- 종 교 : 카톨릭 26.4%, 성공회 20.5%, 그리스도교 20.5%
- 건국일 : 1901. 1. 1.
- 기 후

북반구와는 계절이 반대인 오스트레일리아는 대체로 온대기후에 속하지만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약 35배로 넓어 기후가 매우 다양하다.

국토의 60% 이상이 연강수량 50mm 이하인 사막기후지대이며, 나머지 10%는 연강수량 100mm정도인 반건조기후지역이다.

● 인 구

오스트레일리아는 주민의 대부분이 연안지대, 특히 남동부에 편재하는 여러 도시에 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집단이주한 유럽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01년 독립 이후 백호주의 정책을 고수해 오다가 1973년 이를 폐지하였다. 이후 아시아계 이민이 급증하자 경계심이 고조되어 1991년 투자이민을 제한하고 자영업 기술 이민을 촉진한다.

◎ 사회보장

오스트레일리아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었고 근대적 복지국가의 표본이 되었다. 1909년부터 국민복지를 위한 정부역할이 증대하여 노령자연금, 장애연금 및 산업수당제를 도입하였다.

1984년에는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였고, 그밖에 출산수당, 육아수당, 실업자수당, 질병수당, 미망인연금, 부양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이 있다.

건강보장제나 신체장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며,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문 화

오스트레일리아는 기본적으로는 다민족·다문화사를 지향하나, 부분적으로 원주민의 문화 및 이웃나라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았다.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1963년 5월에 국교를 수립하였다.

IV. 기관 및 문화체험 연수내용

□ 방문지역

로토루아 시청(1. 16.)

◎ 면 적 : 2,614km²

◎ 인 구 : 54,000명

◎ 위 치 : 오클랜드의 남동쪽 200km 지점으로 해발 280m의 로토루아는 호수 한쪽에 위치하고 있음

◎ 특 성

- 화산지대로 도심 곳곳에서 유황냄새가 나며 온천 관광 휴양도시로 발달
- 마오리족의 거주지로 현재도 전통적인 취락을 남기고 있으며
- 인구의 20% 이상이 마오리족으로 농업과 어업이 발달하였으며
- 원주민인 마오리문화가 꽃을 피우는 곳으로 북섬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 도시임
- 시청주변과 정부공원에서도 온천 유황냄새가 코를 찌르고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도시였음



와이토모 동굴(1. 16.)

= 세계 8대 불가사의 와이토모 동굴 문화 탐방 =

◎ 석회암 동굴

- 약 3천만년 전 와이토모 지역은 바다밑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때 무수한 해양식물들의 잔해가 해저에 천천히 퇴적되어 암석층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 동굴 안에는 오랜기간 천장에서 물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벽, 암석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형성된 종유석과 석순이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다.
- 1센티미터의 종유석을 형성하려면 약 100년이 걸린다고 추정하고 있었다.
- 석회암은 거의 화석 및 미네랄인 탄산칼슘(CaCO_3)으로 구성되어 동굴안에서 울림 현상이 없었으며 우리 일행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애국가를 불렀다.

◎ 아라크노캄파루미노사(반디 벌레의 일생)

- 동굴 안 아라크노캄파루미노사라는 벌레가 살고있어 루토루아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다.
- 알 : 암컷은 약 120개의 작은 구형의 알을 산란한다.
약 20일이 지나면 알에서 유충이 부화된다.
- 유충 : 알에서 부화된 유충은 서식처를 짓고 실을 내려 먹이를 섭취한다. 실에 있는 끈적끈적한 물질에 곤충이 걸려들면 이를 끌어올려 잡아 먹는다. 유충이 3mm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눈에 떨 정도의 빛을 발하며 9개월 간에 걸쳐 성낭개비의 형태와 크기로 성장하게 된다.
- 이 곤충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지금도 원주민 마오리들이 관리하고 엄격히 인원을 통제하여 곤충들이 자라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뉴질랜드 농민조합(1. 16.)

◎ 시설명 : Federated Farmers of NZ(농민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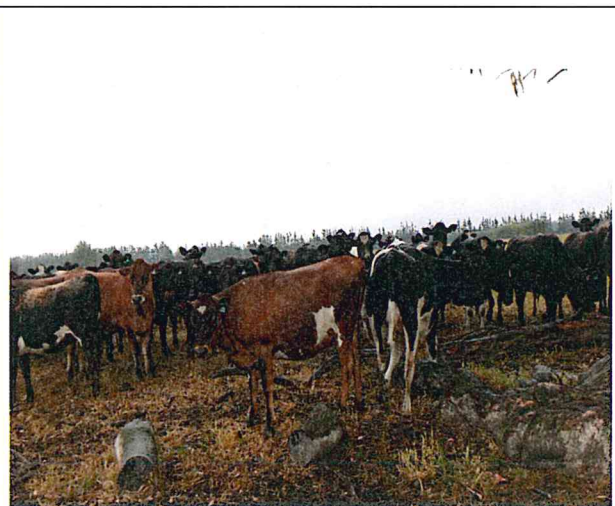
- 1899년에 설립된 뉴질랜드 농민조합은 여러 해를 걸쳐 진보되어 왔으며, 뉴질랜드 농협은 뉴질랜드 농촌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단체로서 뉴질랜드 전역에 18,500여명의 회원이 있다.
- 9개의 산업별 지부는 육류, 양모, 낙농, 농촌지역 도살업자, 양곡생산 농가, 청년영농인, 양봉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고, 농협은 오직 농민들의 힘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전 회원의 자발적인 회비가 전체 자금이다.
- 농민조합의 목표는 “우리 조합원의 농촌사업을 더 가치있게 하자”로 1998년에 채택되었다.

◎ 뉴질랜드의 농업구조

- 농업은 내수시장이 목적이 아니라 월드마켓을 상대로 대부분 수출한다. 뉴질랜드 농업은 국내 GDP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80%는 수출 농가로 구성되었다.
- 농민조합의 매출은 199억 달러로 뉴질랜드 전체 수출액의 25%나 차지해 세계 최대 낙농 수출업체이다.
- 농업의 주된 형태로 소고기 산업 대부분은 뉴질랜드의 북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 산업은 1983년도에 70.2%에서 1999년 45.6%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 대신 포도주 와인 생산을 위하여 양들의 방목장이 포도주 나무로 바뀌어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
- 포도나무가 식재된 맨 앞줄에는 장미 한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진딧물이 장미에서 가장 먼저 발하기 때문에 병충해 예찰 목적으로 식재한다고 한다.

◎ 농민단체인 농민조합 구성

-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농민연합(Federated Farmers of New Zealand : FFNZ)의 전신은 1902년에 설립된 뉴질랜드 농민 조합이다.
- 농민 조합은 다시 1944년에 양소유자 연합과 합병이 되었으며, 농민 연합은 1945년 이후 민주적이며 독립적인 기구로서 뉴질랜드 전체 농민을 대표하는 기구다.
- 뉴질랜드 농민연합은 현재 25,000여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24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회와 9개 산업조직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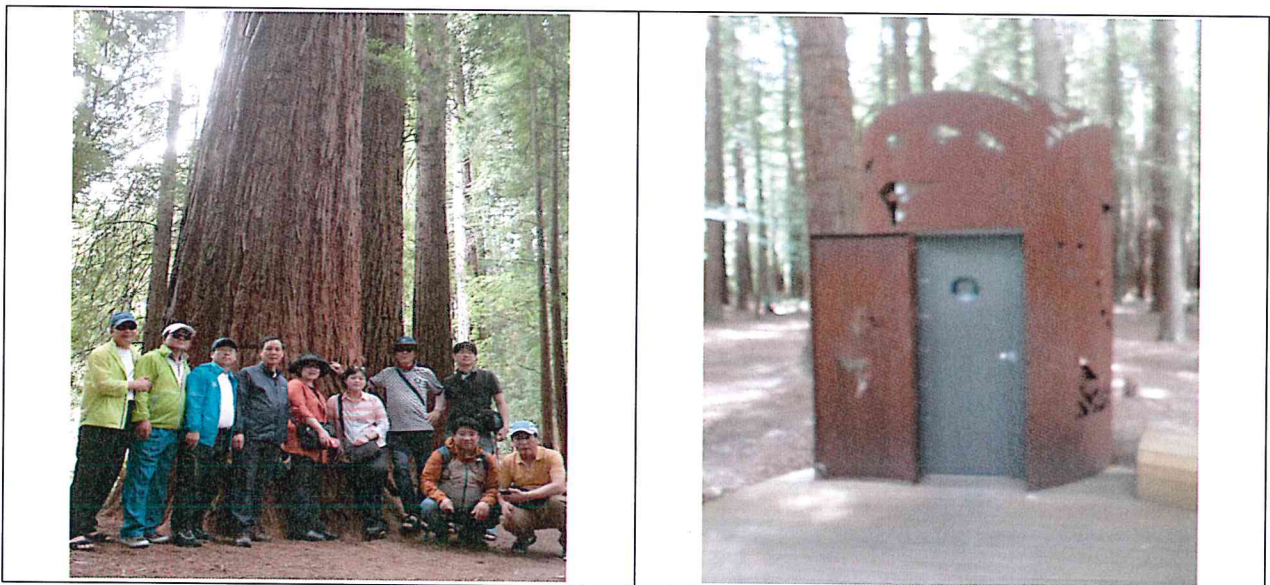
레드우드 수목원 방문(1. 17.)

◎ 수목이 자라기 적합한 기후

- 레드우드 수목원은 약 50만평의 면적이 원시림을 이루고 아름답리 나무들이 무성하고, 특히 메타쉐쿼이아의 경우 8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직경이 5m 이상이고, 높이는 80 ~ 120m 이상 자라 장관을 이루었다.
- 뉴질랜드의 기후는 대체적으로 온화하고 따뜻하여 나무들이 잘 자라고 넓은 들판의 파란 잔디는 우리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하였고 가축(소, 양, 말 등)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가 있었다.

◎ 시설물 설치의 배려하는 마음

- 수목원 내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이곳에서는 개들의 휴식공간이라는 뜻말까지 붙여놓아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습지나 겨울철 등 위험지역에 나무로 통로를 만들고 미끄럼 방지용 플라스틱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 수목원 입구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으나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이 많이 들게 하였고, 자연에 거슬리지 않도록 통나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인상 깊었다.





마오리 민속촌 방문(1. 17.)

- ◎ 마오리 민속촌은 간혈천과 진흙 열탕지대를 포함하고 있었다. 지열이 있는 지역이라 공동 음식저장고는 지상에서 약 1m 이상 높이에 지어져 있었고, 고사리나무를 이용해 여성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가옥은 반지하로, 남자 성인이 거주하는 가옥은 지표면에 지어져 있었다.
- ◎ 간혈천은 계속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정도마다 솟아 오른다고 한다. 간혈천 곳곳에서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진흙이 보글보글 거리고 있었으며 땅에 앉으면 온돌방처럼 따뜻하였다.
- ◎ 마오리 족은 원래 하와이 쪽에서 건너와 몸짓이 크고 용맹했다고 한다. 전사임을 알리는 문신과 눈을 크게 뜨고, 혀를 내미는 동작이 있는데 그것은 “너를 잡아먹겠다”라는 뜻이고, “kia ora”라는 코인사는 우호적이라는 의미의 인사로 뉴질랜드 인사말이다.



뉴질랜드 6.25 참전비 방문(1. 17.)

◎ 6. 25전쟁에 참전한 마오리족

우리나라 6. 25 전쟁 당시 UN연합군으로 뉴질랜드에서 5000여명을 파병하여 150여명이 전사하였다고 한다.

참전한 뉴질랜드 병사의 대부분은 원주민 마오리족이었다고 한다.

◎ 6. 25참전 희생자 기념비 찾아

오클랜드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공원지역에 뉴질랜드 한인회에서 6. 25희생자 기념비를 제작하였다고 하여 우리 일행은 비가 오는 가운데 비를 맞으며 기념비를 찾아 묵념을 올렸다.

◎ 마오리족이 우리나라 전쟁터에서 고향을 그리며 불렀던 "Pokarekare Ana"가 이들의 민요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연가”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애로우타운 탄광촌 견학(1. 18.)

◎ 애로우 타운은 중국인이 만들었다.

- 1839년 영국과 중국간의 아편전쟁으로 중국이 패망하여 포로로 중국인민들이 애로우 타운으로 끌려와 탄광에서 노예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 지금도 그때의 노예생활을 하면서 거주하였던 집들을 잘 보존하여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있었다.

◎ 애로우 타운의 관광자원

- 인구는 약 2,200여명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도시이지만 100여년 전의 건물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 지금도 중국인들의 후세들이 많은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함



퀸스타운 공원 방문(1. 19.)

◎ 아름다운 퀸스타운 공원

- 뉴질랜드 국가는 여성 우월국가라고하며, 여왕의 도시라고 하는데 도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제일이 여성, 두번째가 어린이, 세번째가 노인, 네번째가 개, 다섯번째가 남자라고 한다. 이혼할 경우 여자에게 소득액의 70%를 주어야 한다고 한다.
- 퀸스타운이라는 이름도 여성을 뜻한다고 하며, 와카티푸 호수를 끼고 공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 뉴질랜드에서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훼손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즉 나무가 아래서부터 제멋대로 자라고, 바람에 넘어져도 그대로 방치하여 넘어진 나무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었다.
- 공원 내에는 노인들을 위한 론볼링장과 젊은층을 위한 프리스비 골프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를 즐기는 모습에서 여유와 멋을 느낄 수가 있었다.

◎ 와카티푸 호수

- 호수의 길이가 약 80km로 퀸스타운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물은 수정처럼 맑아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 많은 유람선과 보트들을 운행하고 있었고, 주변에 음식점이 많이 있어도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았다.
-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처럼 용배수로 시멘트 구조물이 없었고 자연상태의 배수로에 모래와 자갈이 있어 일차적으로 정화정에서 정화된 물이 자연 방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화됨으로써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키위농장 방문(1. 20.)

- ◎ 뉴질랜드의 세가지 대표적인 상징물은 양, 키위과일, 울블랙 럭비팀이 있다.
 - 1904년 한 이름없는 학교의 선생님이 중국산 양다래를 뉴질랜드에 심었는데, 이것이 뉴질랜드의 특산이 되어서 이제는 Kiwi fruit라고 불린다.
 - 키위과일은 현재 뉴질랜드 농업부분에서 수출산업을 선도해 가는 대표적인 상품이 되었다고 한다.

- ◎ 뉴질랜드에서 자라는 키위과일은 저장성이 좋고 최고의 품질과 맛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키위과일의 생산에 환경 조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 온화한 해양성 기후, 너무 덥거나 건조하지 않은 여름과 겨울
 - 화산활동을 통해 영양성분이 풍부한 화산재가 쌓여 형성된 토양환경
 - 연중 1,300 ~ 1,500mm의 충분한 강수량
 - 풍부한 일조량(세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고, 늦게 짐)

- ◎ 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비중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65%를 차지한다.
 - 동물사육 마리수는 인구 430만명 보다 10배 정도 많은 4,000여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 축종별로는 젖소, 양, 육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젖소는 생산된 우유의 95%를 수출하고, 유제품과 키위는 수출 세계 1위, 사과를 수출 세계 3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농업 국가이다.

◎ 제스프리 탄생

- 초기 키위를 수출하면서 수출 창구가 단일화 되지 않아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농가 수익하락으로 이어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케팅 보드를 만들자고 움직였다.
-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제스프리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현재 제스프리의 키위는 전세계 8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전체 재배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 키위 수출농가의 발전을 위한 자조금(self -help cost) 마련

- 수출농가로부터 3.6kg당 1센트씩 거출하여 생산자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에만 관여하고 있다.
- 농가들은 20여년전 키위 판매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농가끼리 경쟁하다보면 결국 피해는 자신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마운트 쿡 국립공원 방문(1. 20.)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국·공립공원은 무료로 운영되었다.
- 약 1만 2천년 전 빙하에 의해 형성된 태고의 웅장한 원시림의 모습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 중의 하나이다.
 - 만년설이 녹아서 만들어진 폭포로 인하여 귀암이 만들어지고 환상적인 경관과 쌓여있는 만년설은 말 그대로 큰 관광자원이었다.
 - 만년설이 녹아 만들어진 푸카키호수는 물이 너무 맑고 차가웠으며, 빙하, 지하수 등으로 인해 물이 풍부한 뉴질랜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체리농장 방문(1. 21.)

◎ 뉴질랜드 연수 마지막 일정으로 체리농장을 방문하였다.

- 크라이스트처치로 가는 길목 도로변에 체리농장과 이곳에서 생산된 과일들을 즉석에서 판매하는 일명 로컬푸드점 있어 당초 일정에는 없었지만, 과일 판매사항과 체리농장을 둘러 보았다.
- 약 10,000평 정도의 넓은 체리 밭은 수확을 거의 끝난 상태였으나 인상 깊었던 것은 풍수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과수원 주변에 상록수 방풍림을 조성하여 놓은 것이었다.

◎ 체리농장에서 로컬푸드점 운영

-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여러가지 과일들을 볼 수가 있었으며, 가격도 저렴하였다.
-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여 매장으로 가지고 오면, 이곳에서는 생산자 이력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믿을 수 있도록 판매하고 있었다.
- 주윤식 의원은 이곳에서 땡쵸이 복숭아를 발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과일이라며, 생산자를 찾고자 하였으나 약 3시간 이상 차량으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곳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다음 일정으로 인해 가지 못하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었다.
- 이 땡쵸이 복숭아는 당도가 높아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용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크라이스트처치(1. 21.)

◎ 인 구 : 37만명

◎ 면 적 : 1,432km²

◎ 도시 특색

- 뉴질랜드 제2의 도시
- 남섬의 정치, 경제, 문화, 관광산업의 중심지였음
- 영국식 공원이 둘러싸고 있는 공원의 도시
- 다만, 2011. 2. 22일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도시를 새로 만들고 있는 상태였음
- 크라이스트처치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정원의 도시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음
- 도시 전체의 모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부지 내에 크고 작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음
- 도로변 인도에 가로수가 있는 부분의 보도블럭 등을 철거하고 잔디를 식재하여 겨울철에는 도시의 온도를 높이고, 여름철에는 도시의 온도를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



파라마타 시의회 방문(1. 22.)

◎ 일반현황

- 위 치 : 호주 시드니 서쪽 25km
- 면 적 : 60km²
- 인 구 : 14만명
- 기 후 : 봄 9~11월, 여름 12~2월, 가을 3~5월 , 겨울 6~8월

◎ 시정현황

- 예산규모 : 약 6천5백만 호주달러
- 공무원수 : 850명
- 의 원 수 : 15명(시장이 의회 의장 겸직)
- 시장 선출방법 : 매년 9월 의회의원 중에서 호선, 임기 1년
- 의원 선출방법 :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 임기는 5년
- 행정조직

시장 - 부시장 2명 - 수석행정관(Genera Manger) 1명 - 그룹
행정관(Group Manger) 3명 - 부서행정관(Section Manger) 15명
- 직원(Sraff)831명

◎ 지역특성

- 시드니 지역 제2의 도시
- 유통, 무역, 업무 등 경제 활동 중심지
- 호주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도시
- 주요시설로는 연방정부 및 NSW주 정부부처의 지방청 다수,
종합대학 2, 단과대학 1, 종합병원 4개소가 있음

◎ 기타

- 파라마타시 의회 의장 출신으로 국회의원 3명이 배출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 향후 8년 동안 8조원을 투입하여 시드니 주변 제1의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함
- 의회 회의는 2주에 1일씩 운영하는데 야간시간대에 열린다고 함

(시의원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을 가지고 있어 낮시간때 회의가 어렵다고 함)

- 주요 정책결정은 시장, 부시장, 행정관 등이 모여서 결정한다고 함
- 의회 방청석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방청 의석수가 차면 입장이 불가하고, 회의장에서는 박수나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함
- 현재 파라마타시에 한국 대형교회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가 신청 되어 심의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음



블루마운틴 국립공원(1. 22.)

◎ 호주의 그랜드 캐니언 블루 마운틴

- 블루마운틴 산을 뒤덮고 있는 유칼립투스 나뭇잎에서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 수액이 증발하면서 푸른 안개가 발생하는 현상 때문에 “블루마운틴”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 국립공원으로 깊은 산중에 주라기 시대에 서식했던 ‘울래미 나무’가 발견되어 1994년 유네스코가 세계 10대 문화재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 해발 1,200m인데 산봉우리가 없고 수평선처럼 펼쳐져 있어,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산을 오른다는 느낌도 없이 정상에 도달하였다.
- 정상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실 때마다 묵고 간다는 카툼바 마을이 있었고, 마을 전망대에서는 거대한 협곡, 폭포, 기암괴석과 같은 웅장한 산세의 장관을 볼 수가 있었다.

◎ 탄광에서 이용한 궤도열차 개조

-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경사 52도의 시닉 레일웨이(수직궤도열차)를 타고 산 아래로 내려가면 삼림욕을 할 수 있는 시닉 워크웨이(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산책로에는 열대림이 우거져 있어 몸을 쾌적하게 한다는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된다고 한다.
- 이 궤도는 옛날 탄광에서 석탄을 나르던 궤도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한다.



시드니 시청 및 동부지역(1. 23.)

◎ 공공기관들의 휴가 시즌

- 뉴질랜드와 호주의 공공기관들은 12월 중순부터 1월 말일까지는 대부분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 하지 않고, 근무시간도 08:00~17:00까지만 하고 있었다. 퇴근도 대낮처럼 밝은 상태에서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고 있었으며, 저녁 21시가 되어야 어두워졌다.
- 대부분 민원처리는 요일별로 정하여 담당공무원(행정)과 민원이 만나서 해결하는데 월요일은 교통 관련, 화요일은 도로 및 도시 계획 관련, 수요일은 환경 및 생활쓰레기 관련, 목요일은 가족 관련 사항 등을 사전예약에 의해 처리한다고 한다.
- 상업·금융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시드니 시청사는 1880년대 지어진 빅토리아 양식의 건물로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시청사로 사용되고 있었다. 시청 주변에는 마틴 플레이스, 세인트 메리스 대성당, 차이나 타운, 쿤 빅토리아 등이 위치해 있었다.



◎ 시드니 동부지역 문화 탐방

- 더들리페이지는 시드니에서 가장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언덕위에서 시드니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집들이 길게 뻗어있는데 앞은 좁아 보이나 뒤쪽으로 넓은 뜰이 있다. 이 마을은 동네 부호가 언덕위의 땅을 사서 시에 기증했다고 한다.
- 갭팍지역은 태평양의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절벽에 위치한 관광의 명소였다. 영화 “빠빠용”에서 죄수들이 나비를 잡는 장면을 촬영한 곳이기도 하다. 약 100m 높이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사람을 삼킬 듯이 서있는 이곳은 개척시대에 힘든 노동과 빈곤, 고독에 절망한 죄인들이 몸을 던졌다고도 하며, 아직도 시드니의 자살명소로 유명하다고 한다.
- 본다이비치는 시내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약 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남태평양과 맞닿아 있어 파도가 높은 이 해변의 이름인 bondi는 어보리진 언어로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라는 이름이다. 겨울철에도 해수욕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한다.



◎ 시드니 하버브리지와 오페라 하우스

- 하버브리지(Sydney Harbour Bridge)

하버브리지는 1932년 완공되었으며, 길이 1,149m, 높이 해발 134m로 오페라 하우스와 조화되어 한쪽의 그림을 이루고 있다. 호주를 대표하는 상징물 중 하나로 시드니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4번째로 긴 아치교이다.

- 오페라 하우스

14년 간의 공사를 거쳐 1973년 완공된 건물로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설계하였는데, 수심이 27m 위에 588개의 말뚝을 박아 그 위에 세웠다고 한다.

실내는 5개의 크고 작은 공연장이 있으며, 딸린 방도 무려 1,000여 개나 된다고 한다.



V. 연수과정에서 느낀점

1. 뉴질랜드에서의 경험

① 풍요로운 뉴질랜드(박광득 위원장)

공항부터 계속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지나가는 경관들을 감상하였는데 정말 아름답고 풍요롭고 한가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없이 펼쳐진 대평원에서 많은 양들과 사슴, 그리고 젓소, 육우 등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나라의 축산상황과 비교되어 무거운 마음이었다.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국도 수준으로 중앙분리대가 없는 2차선이었다.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주행중 차량 흔들림이 많았다. 이유는 운전자의 졸음을 방지하고, 우천시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또한, 도로의 갓길에 없어 한번 출발하면 2~3시간 이상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고, 차량운행 속도는 시속 110km로 제한되어 있었다. 범칙금 규정이 강화되어 교통법규 위반시 많은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였다.



② 복지정책이 앞서가는 나라(임종기 의원)

인구밀도가 낮고 자원이 풍부하며 1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다. 2차 산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공해문제가 없고, 환경을 중시하고 자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시하는 정책 등을 보고 느끼면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고 여겨졌다.

③ 원주민과 함께 발전해 가는 뉴질랜드(나안수 의원)

원주민(마오리 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 원주민과 함께 발전해 가고 지금도 원주민들에게 많은 배려(국회의원 원주민 할당제)를 하여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마우리 민속춤을 볼 수가 있었으며 직접 체험도 하여 보았다.



④ 법 질서 준수와 공권력이 바로 선 나라(유혜숙 의원)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차량 안에서 흡연 및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교통법규가 엄격하다고 한다. 거리에 경찰차량이나 경찰관을 쉽게 볼 수가 없으나, 시민들이 불법사항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는 신고정신이 투철한 나라라고 한다. 또한, 시민들은 경찰의 공권력에 일절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준다고 한다.

특히, 관광버스 운전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에는 운전자가 운행기록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비행기 기록장치처럼 출발장소, 중간휴식시간 등을 기록하여 보관, 휴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한다.

차량바퀴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있었다.



⑤ 자유분방 속에 문화가 자란 뉴질랜드(박계수 의원)

뉴질랜드에서는 15호 이상의 농가만 있어도 마을 골프장과 럭비 구장이 있어 농부들이 장화를 신고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유로운 길거리 문화와 다른 이들을 의식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애정표현은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좀 다른 것 같아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⑥ 자연환경이 앞서가는 뉴질랜드(정철균 의원)

뉴질랜드의 환경은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었다. 그것은 외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국내관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물을 사먹지 않고 아무곳에서나 물을 먹어도 되는 나라, 화장실 세면대 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였다.



⑦ 세계관을 넓히는 기회(주윤식 의원)

이번 연수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세계관과 시야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과 만나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짧은 영어로 듣고 얘기 하며 견문을 넓히는 것이 정말 좋은 경험이자 잊지 못할 문화 체험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2. 호주에서의 경험

① 팁 문화와 애국의 길을 깨닫는 기회(박광득 위원장)

여러 민족이 살면서 보이지 않은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가이드는 숙박후 호텔 베개 위에 올려 놓는 팁은 우리나라 돈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앞으로 외국을 이용할 때도 한국 돈을 많이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월등히 향상되었으니 원화를 사용하면 조그만한 애국심이 될 수도 있고, 환전하는 한국통화가 늘어나면 한국의 국외인식도 개선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 관광객이 늘어나면 서비스 업소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민을 한명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동감을 하였다.

② 자원이 풍부한 나라 호주(유혜숙 의원)

호주는 6개주로 되어 있으며, 연안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황무지에 가깝다고 한다. 자원이 풍부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나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1차 산업의 생산량을 늘려 GDP를 올릴 수 있는 나라, 최상의 제품은 자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출하는 인구 2천만명에 면적은 우리나라의 70배 정도인 이 나라에 많은 부러움을 느꼈다.

③ 인내로 끈기로 이룬 나라(나안수 의원)

모든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호주의 모든 정책은 식민지 시절부터 오랜 세월동안 지방자치의 우수성을 자기들의 환경에 맞게 완성시켜온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④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정철균 의원)

주요관광지, 공원, 습지들을 보면서 개발보다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고 더불어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⑤ 인공이 가미된 아름다운 호주(주윤식 의원)

도시주택은 일부 인위적인 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나무와 숲, 그리고 해변의 모래, 바다에 서식하는 돌고래, 포도나무 개량 등 자연환경과 전통농장 등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⑥ 관광상품의 세심한 배려(박계수 의원)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관광상품과 연결하고 세세하게 알려 줌으로써 관광객이 흥미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시도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3.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느낀 점

① 세금 납부의식 함양(박광득 위원장)

호주와 뉴질랜드 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의료, 복지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대신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례해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주므로 개개인은 본인들이 누리는 혜택만큼 세금 납부는 당연하다고 여기며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한다.

② 자동차 중고시장 활성화(나안수 의원)

호주에서도 국산 차량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 시드니 시내를 가다보면 자동차 중고시장이 많은데 호주에서 생산하는 차량은 1개 회사 뿐이고, 거의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보통 5~6년, 짧게는 3~4년 정도인데 비해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이 많다고 한다.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중고차 판매장에서 새차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③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유혜숙 의원)

거리의 인도 계단, 육교, 경사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 위주의 시설물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④ 공원 주변 주민 편의시설 확충(정철균 의원)

공원마다 바비큐를 할 수 있게 가스 취사가 가능한 장소가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인상적인 것은 모든 시설이 유료가 아닌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에서 가족단위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조그마한 공간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안락한 의자가 비치되어 있었고,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도 깨끗하게 관리하여 인상 깊었다.



⑤ 공공시설 주변 무인주차 시스템 설치(주윤식 의원)

도심 도로변이나 놀이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무인 주차 티켓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주차시간을 누르고 동전을 넣으면 티켓이 프린트되어 나오며, 이 티켓을 차량 앞 유리창에 잘 보이도록 놔두면 된다고 한다. 만약, 주차티켓을 끊지 않고 불법 주차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무인주차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⑥ 소수 민족을 배려한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된 팸플릿(임종기 의원)
이민 온 소수민족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등 안내 팸플릿을 한국어 등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제작, 비치해 소수민족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우리시도 이제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으므로 필리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⑦ 친환경 자연순환형 축산 산업(박계수 의원)

우리나라는 구제역이 발생하여 매년 많은 가축들을 땅에 매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방목과 풀사료에 의한 친환경 자연순환형으로 양축하기 때문에 질병발생이 없고 양질의 고기가 생산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축사나 농후사료 지원보다는 축산경쟁력을 높이고 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동물 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Ⅵ. 연수를 마치면서

- 자연환경과 문명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 호주, 빙하와 만년설에서 시작한 초록빛 맑은 물과 공기 및 푸른 들판을 가진 뉴질랜드 두 나라를 방문하며 많은 감명을 받았다.

- 굴뚝없는 1차 산업과 관광산업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있는 두 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눈앞의 물질적인 이익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것을 실행하는 모습을 느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먼저 접근하면 자동차는 즉시 멈추고 기다려주는 모습, 사람이 앞에 가면 경적을 울리거나 비켜줄 것을 요구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모습 등과 같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뉴질랜드와 호주가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하게 되었다.

뉴질랜드 1인당 GDP 44,000달러, 호주 62,000달러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 연수과정에서 호화관광성 여행을 떠났다는 일부 언론의 눈총도 받았다. 그러나 우리 연수팀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비판받을 만큼의 호화로운 여행이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연수과정에서 뉴질랜드와 호주의 다양한 문화와 자연친화적인 농축산 정책들을 참고하여, FTA 체결로 인하여 우리 농축산업 경쟁의 대상인 이 나라들과 어떻게 해서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밑거름으로 삼아 더 큰 순천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한다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본다.